

유배 죄인의 ‘만언(萬言)’, 상황과 처지를 그려 내다

염은열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궁중의 화제가 된 ‘만언’

우연히 듣게 된 낯선 노랫말에 끌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노랫말이 어느 순간 새삼스럽게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다. 노랫말의 감성과 듣는 이의 감성이 만나 공명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은, 노래가 청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 구체적으로 듣는 이가 노래를 통해 어떤 감정이나 상황 등을 새삼 깨닫거나 깊게 받아들이는 순간이다.

고전 시가도 ‘한때’ 그런 노래였다. 누군가 지어 부르거나 읊조린 노래가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일대 유행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개의 고전 시가 작품은 이본(異本, version) 혹은 각편(各篇)이 여럿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본의 존재 자체가 공감의 폭과 유행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그 울림 혹은 공감은 물론 ‘말’을 엮는 솜씨에서 나온다. 새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일상의 단어들을 고르고 엮어, 어떤 성격이나 이미지, 상황, 감정 상태 혹은 전언 등을 있게 함으로써 생겨난 효과이다. 말로 어떤 실재(實在)를 만들어 냄으로써, 나아가 듣는 이 혹은 읽는 이의 머릿속에 어떤 ‘형상’을 그려줌으로써 생겨난 효과인 것이다.

우리는 고전 시가를 듣거나 읽으면서 그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고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만나기도 하며 누군가의 고난과 기쁨 혹은 슬픔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처럼 말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형체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일컬어 사전에서는 ‘형상화’라고 정의한다. 형상화는 문학을 다른 글과 구분해 주는 특징인 바, 얼마나 실감 나게 그려 내느냐에 따라 감동이나 공감의 폭과 깊이가 결정된다.

정조(正祖, 1752~1800) 때 대전별감 안도환은 자신의 추자도 유배 체험을 실감 나게 그려 낸 작가로 유명하다. 안도환은 한양 중인 출신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다가 비리를 저질러 추자도 유배형을 받은 사람인데 ‘문장 필법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한다. 안도환이 유배지에서 일 년 정도를 보낸 시점에서 옛날 일[已往之事]을 생각하고 지금의 일[즉금 일]을 헤아려 자신의 삼십사 년 생애를 <만언사>로 풀어냈는데, 당시의 개념으로는 가장 큰 ‘만(萬)’이라는 숫자를 제목으로 내세웠다. 왕의 총애를 받던 대전별감이었고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며 한양 바닥을 주름잡다가 ‘원악지(遠惡地)인 추자도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고군분투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만언사>는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표현 방법을 보여 줌으로써 큰 인기를 끌었다. <만언사>의 필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후기가 덧붙여져 있다.

(생략) 상이 우연히 누상에 올라 배회하시며 보시니 무수한 궁녀 둘러앉아 한 책을 둘러보고 두세 상궁은 오열체읍하고 모든 궁녀는 손뼉 치며 간간 졸도하며 혹 탄식하고 칭찬하야 자못 분분하거늘 상이 괴이히 여기사 환시로 하여금 그 책을 가져오라 하사 읽혀 들으시고 지은 사람을 물으시니 이르되 죄인 안도원의 글이라 아뢰오니 그 문장의 기틀과 번사의 재담을 사랑하사 즉일 방송하시고 즉시 옛 소임을 주사 천문을 근시하사 천원의 호탕하심과 도원의 재리일세의 유명하더라. - <만언사> 가람본 후기

왕이 우연히 <만언사>에 대한 상궁과 궁녀들의 반응을 목격하게 된다. 왕이 오열체읍(嗚咽歔歔), 즉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손뼉을 치기도 하고 간간히 즐도하거나 탄식을 하는가 하면 어느 대목에 이르러서는 칭찬을 하는 등 자못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떠들썩한[분분(紛紛)]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물론 이 기록은 세책가가 세전을 더 벌기 위해 지어냈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만언사>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필사되고 위와 같은 기록까지 붙어 소설처럼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된 정황만 보더라도 <만언사>의 인기가 대단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후대 세책가들은 그 인기가 변사 안도환의 재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만언(萬言)'으로 그려낸 안도환의 처절한 유배 살아가, 즉 말로 형상화한 유배 체험이 당시 청중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공감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는 안도환이 특히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상황과 처지란 물리적 상황이나 처지는 물론이고 안도환의 심정 상황과 처지까지를 포함한다.

2. 심적 정황에의 몰입을 유도하다

문학 중에서도 시가라는 갈래는 압축을 생명으로 한다. 촌철살인의 한 구절로 복잡한 상황과 처지, 심정을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은 분명 시가 문학의 묘미이다.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양식이다 보니 비유적 표현이 많은 데다가 울격이 느껴지도록 말을 엮어 듣거나 읽는 즐거움까지 주는 것이 가사의 양식적 전통이다. 조선 중기까지의 가사 작품들은 대개 이러한 시가 문학의 양식적 특징과 묘미를 보여 주는데, 무욕이 지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규원가(閨怨歌)>도 예외는 아니다. 허난설헌은 봉황처럼 천하를 꿈꿀 수 있는 상상력을 지녔지만 정작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규방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었던, 16세기를 살다간 20세기의 여인이다. 자신의 처지와 한(恨)을 <규원가>에 담았는데, <규원가>에는 더할 말도 없고 뺄 말도 없다.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꽃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없이 나가 있어
 白馬(백마) 금편(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라
 因緣(인연)을 끊었은들 생각이야 없을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문
 열두 때 깊도 길샤 서른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에 심은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 비는 무슨 일고
 三春花柳(삼춘화류) 好時節(호시절)에 景物(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백마를 타고 금색 허리띠를 둘렀다는 것은 남편이 한껏 치장을 했다는 소리다. 그런데 한껏 차려입은 남편이 집을 나서는 시간이 절묘하다. 저물 때 집을 나선다. 저물 때, 그것도 예사 저물 때가 아니라 ‘꽃 피고’ 저물 때 집을 나선다. 화자에게는 남편이 잘 차려입고 나갔다는 사실 못지않게 잘 차려입고 나가는 때가 중요하다. 개화(開花)가 사건이 되는 시점은 아마도 봄일 터……. 저물어 가는 봄날 울타리 안이나 담장 너머에 복사꽃이나 살구꽃이 피어 있다. 얼었던 세상이 녹고 마음이 사랑거리는 봄날, 그것도

본향(本郷)이 그리워지고 감성이 충만해지는 저물녘에, 복사꽃, 살구꽃 핀 바깥 풍경을 본 규방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때마침 잘 차려입고 나가는 남편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 어디어디 머물까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남편의 자유가 부럽고 기약 없이 규방에 갇힌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여 자탄과 원망의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연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생각과 그리움에 탄식하다가 모진 목숨이라 죽기도 어렵다는 자탄의 말이 뒤따라온다. 관심이 남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화자 자신에게로 옮겨지고, 매화와 자취눈, 굶은 비, 꽃과 버들, 그리고 가을 달과 귀뚜라미 등 익숙한 사물들을 끌어들이며, 사시사철 외로운 규방에서 이 생각 저 생각[햐]을 하느라 복잡한 자신의 심적 상황을 그려낸다. 급기야 <규원가>의 말미에 이르러 화자는 '박명한 흥안'이라며 자신의 운명을 깊이 탄식하기에 이른다.

남편의 외도 혹은 부재 상황을 잘 차려입고 나가는 행위[백마 금편으로 정처 없이 나가는 행위]로 묘사하되, 외출하는 시간[저물 때]과 사건[꽃 피고]까지 특정한, 화자의 감수성이 예사롭지 않다. 날이 저물고 꽃이 피는 걸 느낄 수 있는 화자였기에, 중세 시대 <규원가>를 지어 남편[제도]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길이가 길기는 하지만, <만언사> 역시 <규원가>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물, 심정 등을 형상화하여 보여 준다. '꽃 피고 날 저물 제처럼 상황을 드러내는 데 꼭 맞는 말을 골라 조합함으로써, 독자들 역시 그 상황이 나 심정을 떠올려 거기에 몰입하도록 유도한다.

4월 초순 안도환이 마포나루에서 유배지로 떠나며 가족들과 이별하는 대목을 살펴보자.

강두(江頭)에 배를 매고 부모친척(父母親戚) 이별(離別)할 제
슬픈 울음 한 소리 막막수운(漠漠愁雲) 머무는 듯

손잡고 이른 말씀 좋게 가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올손가
 여취 여광(如醉 如狂)하니 눈물이 하직(下直)이구나
 강상(江上)에 배 떠나니 이별시(離別詩)가 이때로다
 산천(山川)이 근심하니 부자이별(父子離別) 할 때로다
 요로(搖櫓) 일성(一聲)의 흐르는 배 살 같으니
 일대 장강(長江)을 어느 사이 가로 졌다
 풍편(風便)에 울음 소리 빈 강을 건너오니
 행인(行人)도 낙루하니 내 가슴 무너진다
 호부일성(呼父一聲) 없어지니 애고소리 뿐이로다
 규천호지(叫天呼地) 아무런들 아니 갈 길 되올소나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나와 배웅하는 실제 풍경은 위에 그린 것보다 복잡하고 아단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안도환은 ‘좋이 가라’는 짧은 당부의 말을, 그리고 긴 강을 건너 자신을 따라오는 울음소리, 그중에서도 어린 아들의 절규를 선택하여 이별의 상황과 이별하는 고통을 실감 나게 그려 내고 있다. 재회의 기약이 없이 아들을 떠나보내며 부모는 부모 대로 말문이 막혀 ‘좋이 가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고 그 말을 들은 아들 역시 가슴이 막혀 대답조차 못한다. 강둑을 떠난 배가 화살처럼 강을 가로지르니 바람결에 우는 소리가 긴 강을 건너오고 행인들도 눈물을 지으니 자신의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 아들의 목소리마저 사라지고 ‘애고’ 소리만 들리는데 그 와중에 범 같은 관리가 빨리 가라고 재촉한다. 눈물 바람이었을 강변에서의 이별 장면을, 이처럼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규원가>가 시간과 정황을 특정하여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화자의 심리 상태와 정황에 몰입하도록 유도했다면, <만언사>는 구체적인 행위나 사건을 뽑아 비극적인 이별 상황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별의 상황을 떠올리고 화자의 슬픔이라는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슬픔이나 그리움, 원망의 마음은 여러 구체적인 감정이나 행동들로부터 추상한 마음의 상태 혹은 정황이다. 사람마다 감정의 강도와 질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느끼게 되는 계기 혹은 상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규원가>와 <만언사>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사건을 특정하거나 구체적인 것에 빗댄으로써 슬픔이나 그리움, 원망 등을 촉발한 외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 역시 화자의 감정 상태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고백의 양식이기도 한 서정 시가에서는 그리움이나 슬픔, 기쁨, 고통 등의 감정 혹은 심리적 상태와 그러한 감정 및 심리 상태를 유발한 상황을 그려 내는 것이 중요한 미학적인 문제가 된다.

추자도에 있는 죄인 안도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무래도 떠나온 한양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이다. 유배형이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장기 구금형이기 때문에 안도환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불안감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더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실 안도환은 '만언'을 하고도 모자라 <만언답사(萬言答辭)>를 짓고 <사부모(思父母)>, <사처(思妻)>, <사자(思子)>, <사백부(思伯父)>라는 가사 작품을 더 지었다. <만언답사>에서는 왔던 길을 빠르게 되짚어 올라가 한양 땅에 당도하여 가족을 만나 옛말을 하며 사는 것을 상상하였고 나머지 네 작품에서는 가족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유배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여 지은 작품이기는 하지만, 안도환에게 일 년 전 나루에서의 이별 장면이나 추자도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자 감정이다. 객관적 거리를 두거나 조망할 수 없는 사태이고 감정이기애 안도환은 그 사태의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그리움 및 후회의 감정을 형상화할 수밖에 없었고, 화자에게 감정 이입한 독자들

역시 안도환처럼 그 상황과 감정에 몰입하여 ‘오열체읍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만언사>에는 현재 진행형의 감정이나 그 감정을 유발한 상황만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추자도라는 섬까지 이동하고 낮선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 유배자가 경험한 여러 사건이나 관찰 내용 등도 풍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어느 경우나 화자가 경험 주체이자 고백의 주체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 화자는 관찰자이자 이야기꾼의 태도 또한 보여 준다.

3. 이야기꾼으로서 유배 생활을 보여 주다

마포나루에서 가족들과 이별한 안도환은 밤낮으로 이동하여 해남 땅에 도착한다. 큰 바다를 처음 본 안도환은 적잖게 충격을 받지만, 바로 때마침 불어온 서북풍에 기대 유배지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그리고 순항을 하는 배에서 상념에 빠져 있다가 일대 시련을 겪게 된다.

어디서 일편 흑운(一片黑雲) 홀연 광풍(忽然狂風) 무삼일고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배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짓듯 오장육부(五臟六腑) 다 나온다
천은(天恩)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盡)케 되겠구나 (중략)
출몰사생(出沒死生) 삼주야(三晝夜)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 천리(水路千里)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島中)을 둘러보니 적막하기 태심(太甚)이라
사면(四面)으로 들어가니 날 알 이 뉘 있으랴
빼는 것이 바다히요 들리는 이 물소리라
벽해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이 삼길 제는 천작지옥(天作地獄) 여기로다
해수(海水)로 성을 쌓고 운산(雲山)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끊겼으니 인간이 아니로다
 풍도 섬 어디메요 지옥이 여기로다

변덕스런 날씨를, 어디선가 일어난 한 조각 검은 구름과 갑자기 불어 닥친 미친 바람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날씨가 험해지자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 뱃머리를 치고 배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안도환은 이 광경을 쌀을 이는 조리처럼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흔들린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뱃멀미는 오장육부를 모두 게워 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상황이 그쯤에 이르자 안도환은 간신히 사형을 면했는데 유배지로 가다가 죽는 건 아닌지 공포감마저 느낀다. 삼수감산과 같은 오지나 변방, 추자도처럼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들은 유배죄인 중에서도 중죄인들이 갔던 유배지였다. 특히 추자도와 같은 섬들은 원악지 중의 원악지였으며 유배지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목숨을 시험하는 형벌이었다. 그런데 삼일 밤낮 사투를 벌인 끝에 어렵게 당도한 추자도 역시 안도환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변화한 한양 중심가에서 살던 안도환에게 추자도는 적막했고 낯설었으며, 모래와 바다, 구름으로 만들어진 천혜의 지옥처럼 다가왔다.

바다를 건너오며 겪은 풍랑과 처음 본 추자도 풍경을 묘사하는 안도환의 시선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 등 자신의 감정을 형상화할 때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이별의 상황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그리움을 형상화할 때에는 달리 위 부분에서는 화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거나 조망하는 위치에 서 있다. 그 배가 떠 있는 바다까지 조망하는 높은 위치에 서서 흔들리는 배를 쌀을 이는 조리에 빗대고, 섬 전체를 조망하는 높은 위치에 서서 추자도의 형상을 바다로 성을 쌓고 구름으로 문을 낸 모래섬으로 그려 내고 있다. 마치 날아가는 새나 무인기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흔들리는 모습과 큰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모래섬 추자도의 형상을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정철(鄭澈 1536~1593)이 폭포를 형상화할 때 폭포 아래에 서 있는 화자의 시야에 포착되는 모습만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조형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천길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몇 구비를 마디마디 베어 내어 실 같이 풀어서 베처럼 걸었다’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한 당사자도 안도환이고 추자도를 지옥으로 인식한 사람도 안도환이지만, 회고담의 일종인 <만언사>를 지은 시점에서 보면 안도환이 겪은 사건과 본 것은 이미 과거지사이다. 과거지사이니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야기꾼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별로 인한 그리움과 슬픔, 그로부터 얻게 된 마음의 병 등이 현재형이라, 객관화할 수 없는 것과 구별된다.

이야기꾼으로서 안도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즉 장면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자신이 처한 처지와 심정을 형상화하는 방법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집에 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에 가 의지하자 연고(緣故) 있다 칭탈하네
 이집 저집 아모 덴들 적객(譏客) 주인 님 좋다고
 관력(官力)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말았으니
 관차(官差)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턴지며 역정 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아려보소 주인 아니 불쌍한가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 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官人)들은 인정(人情) 받고 손님네는 추김 들어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緣分) 있어 와 계신가
 내 소리 담박(淡泊)한 줄 보다시피 아니 알가
 앞 뒤에 전답(田畝) 없고 물속으로 생애(生涯)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뒷녘으로 장사 가니
 사망 일어(絲網一魚) 보리섬이 믿을 것이 아니로세
 신겸처자(身兼妻子) 세 식구도 호구(糊口)하기 어렵거든
 양식 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랴시오
 집이라고 서 볼손가 기어들고 기어나며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띠자리 한 잎 주어 처마에 거처하니
 냉지(冷地)에 누습(漏濕)하고 짐승도 하도 할사
 발 넘는 구렁배암 뺨 넘는 청진의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일락(日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는고
 별표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위 부분은 유배 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안도환의 변사로
 서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유배지에 당도한 유배자는
 관(官)에 당도했음을 보고한 후 살 곳과 보수주인(保守主人)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생계는 유배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곧 해배될 정치범이나 학식이 높은 사대부 죄인의 경우는 지방의 재력가나
 양반집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안도환
 처럼 중인 비리범으로 해배의 기약이 없는 죄인은 환영은커녕 지역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골칫거리였다. 찾아가는 집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거절
 하자 관리가 안도환을 어느 집에 떠넘기듯 두고 가 버린다. 그러자 집주인이
 만만한 안도환을 향해 세간살이까지 던지면서 역정을 낸다. 자신의 식구들
 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원망의 말을 쏟아 낸다. 보수주인을 정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보수주인의 행동과 말을 통해, 한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안도환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안도환은 결국

그 집 처마 밑에 자리를 깔고 유배 생활을 시작한다. 뱀과 온갖 해충이 나오는 처마 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믐날 희미한 솔불이 두세 집에 켜지고 멀리서 슬픈 소리와 배 떠나는 소리가 들려 안도환의 심회를 돋운다.

이렇게 시작된 안도환의 유배 살이는 그야말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고군분투와 고생 그 자체로 요약할 수 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냥까지 하고 온갖 일을 해 보지만 재주가 없어 늘 배고픔에 시달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온갖 병에 시달리는가 하면 5월 한양을 떠나올 때의 옷차림 그대로 섬에서의 겨울을 맞이하다 보니 극심한 추위와 사투를 벌인다.

한번 의복(衣服) 입은 후의 춘하추동(春夏秋冬) 다 지내니
 안팎 없는 소음옷은 내 옷 밖에 또 있겠는가
 검기도 검을시고 온냉(溫冷)도 부적(不適)하다
 옷칠의 감칠인가 솟장의 먹장인가
 여름에 하 더울 때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에 하 추우니 여름이 생각난다
 쓰이신 망건(網巾)인가 입으신 철갑(鐵甲)인가
 사시(四時)의 하동(夏冬)없이 춘추(春秋)만 되었구나
 팔꿈치 드러나니 그는 죽히 견디려니
 바지 밑 터졌으니 이 아니 민망(憫憫)한가
 내 손수 김자하니 기울 것 바히 없다
 액 굵은 실이로다 이리 얽고 저리 얽어
 고기 그물 걸어맨 듯 썩의 눈 꿰어맨 듯
 침재(針才)도 기절(奇絶)하고 수품(手品)도 사치(奢侈)롭다
 증전(曾前)에 적던 식량(食糧) 크기는 무슨 일고
 한 술에 요기(療飢)하고 두 술에 물리더니
 한 그릇 담은 밥은 주린 범의 가재로다
 조반(朝飯) 석죽(夕粥)이면 부가옹(富家翁) 부러하랴

아침은 죽이러니 저녁은 간데 없네
 못 먹어 배 고프니 허리띠 탓이런가
 허기(虛飢)져 눈 깊으니 뒤꼭지 뒤 거의로다
 정신(情神)이 아득하니 운무(雲霧)에 싸였는듯
 한 고비 넘단 말가 두통(頭痛)이 지심(滋甚)하다

유배지에서의 곤궁함을 먹고 입는 문제로 구체화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늦은 봄 한양을 떠나올 때 입었던 단벌옷으로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났으니 안도환의 여름과 겨울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된다. 그마저 여기저기 해치고 터져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급하게 바지 밑을 손수 수선하기에 이른다. 처음이다 보니 실을 엮는 수준에서 터진 바지를 꿰맸는데, 꿰맨 후 안도환은 자신의 바느질 재주와 솜씨가 대단하다고 자조하고 있다. 바느질까지 손수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가볍게 희화화한 것이다. 한양에 있을 때는 한 술만 먹고 밥상을 물리곤 했던 자신이 추자도에서는 한 그릇을 쥐도 여러 날 굶은 호랑이가 먹이를 먹듯 똑딱 해치운다고 말한다. 늘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먹을 게 없어 눈이 뒤꼭지까지 쑥 들어가고 정신까지 아득해질 정도라도 한다.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된 사건과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겨난 신체적 곤란함 등을 이처럼 잘 형상화할 수가 있을까. 이처럼 안도환은 먹고 입는 문제로 특정하여 유배지에서의 고생을 형상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들 역시 유배 죄인 안도환의 눈물 나는 처지와 상황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4. 울고 웃고 또 울고 웃고

<만언사>는 '나의 추상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구체화한 시가이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생애를 재구성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안도환은 작품 서두에서 ‘심사를 부칠 길이 없어’ 노래를 짓는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답답하고 불안정하고 복잡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호소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 가사를 지었다는 것은 일종의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시가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를 지을 당시 안도환은 고생에는 다소 익숙해졌을지 모르지만 추자도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늦은 후회와 한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온갖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편 감정의 과잉 상태에서 시작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일정 정도 허구화되고 내 삶이 객관화된다. 안도환은 자신의 처참한 상황이나 처지를 형상화하면서도 그 상황을 관찰하거나 조망하는 시선을 보이기도 했고 때로 그 상황을 회화화하기도 하였다. 처절한 일상과 절망적인 심정을 다루면서도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이야기꾼으로서의 재주를 발휘하고 있다. 자신의 고난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자조일망정 그렇게라도 웃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도환은 감정 이입과 거리 두기라는 상반된 태도를 동시에 견지하면서 자신의 유배 체험을 형상화하고 있다. <만연사>를 읽는 궁녀들의 반응이 분분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안도환의 ‘만연’을 듣다 보면 독자들 역시 유배 살이의 실상을 목도하고 유배 죄인의 심정 상황과 처지에 공감해 울다가 웃고 손뼉을 치다가 다시 울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안도환의 말재주가 비상함을 칭찬하게 된다. 궁중의 여인들을 포함하여 과거의 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문학은 고난이나 슬픔을 형상화한다. ‘가난하다’거나 ‘힘들다’거나 ‘슬프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슬픈지 말로 그려서 보여 준다. 그렇게 청자나 독자와 소통을 한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잘 알려진 ‘추상의 사다리’라는 개념을 떠올려 준다. 하야카와(Hayakawa)는 추상의 사다리를 낮게 해야만 말의 미로에 빠지지 않고 소통

할 수 있다고 했다. 붉은색이 뭐냐고 물었을 때 색이라고 답하고 색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질이라고 대답해선 붉은색에 대해 알 길이 없지만, 추상의 사다리를 낮춰 ‘자동차가 멈춰 섰을 때 신호등의 빔깔’ 혹은 ‘소방차의 빔깔’이라고 하면 붉은색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다. 문학은 추상의 사다리가 높은 주제를 다루되 형상화를 통해 그 사다리를 낮춤으로써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배움과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다. <만연사>를 통해 우리는 유배 살이의 실상과 유배자의 고통에 대해 알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세대들은 가난이나 고생, 사랑을 모른다고 걱정하는 기성세대들도 있다. 앞 세대의 가난이나 사랑, 고생을 알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양상의 가난이나 사랑, 고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남의 슬픔에 같이 울고 남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혹은 제한적으로 경험한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소통할 것인가이다. <만연사>, 나아가 문학 작품이 그러한 학습과 소통, 연대의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다.

